

무주군, 코로나19 감염 예방 만전

예비비 2억3천여만원 투입·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선별진료소 운영

무주군이 코로나19 감염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재난상황실에 13개 반 15명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반을 편성한 무주군은 현재 경찰서와 소방서, 의료기관 등과도 핫라인을 구축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군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와 우편, SNS, 마을방송, 배너기와 포스터, LED전광판 등을 활용한 개인예방수칙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비비 2억 3천여만 원을 투입, 마스크와 손소독제, 살균제 등 예방물품들을 구입해 관내 공중이용시설 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을 비롯한 터미널과 버스정류장,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다중집합시설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진행 중이다.

또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 학원과 종교시설, 공중화장실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는 군청을 비롯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정문(손 소독제 비치) 외 출입문을 모두 폐쇄, 직원과 내방객들의 발열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무주군이 코로나19 감염 예방활동을 위해 다중집합시설·학원·종교시설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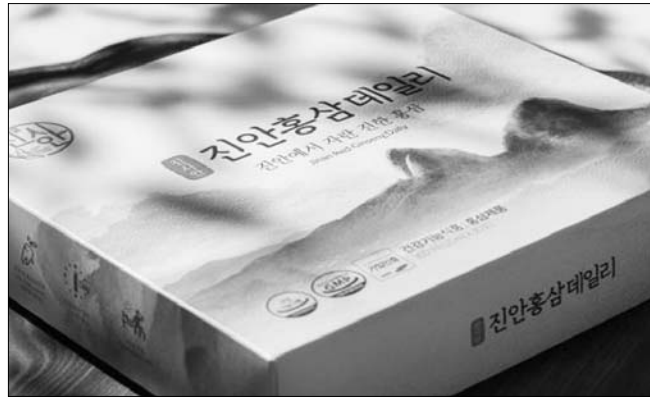
등을 확인하고 있다.

무주군은 관내 수영장과 체육관, 도서관, 경로당 등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잠정적으로 사용을 중지하는 조치를 내렸으며 무주종합복지관은 2월 21일, 무주청소년수련관과 안성청소년문화의 집 등은 22일, 최북미술관과 김환태문학관은 25일, 반디랜드와 머무아인동굴은 26일부터 임시 휴관에 들어갔다.

이외 무주군 관내 다중이용시설들 대부분이 휴관 및 이용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축제나 행사 등도 대부분 취소하거나 연기, 자제하는 등 코로나19 발생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의 지역 내 발생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민들과 예방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것부터 방역과 안내 시설 및 상황 관리, 선별진료소 운영과 내원자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과 진안군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면역력 증진에 좋은 '진안홍삼 데일리' 제품을 오늘부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특별 할인 판매한다.

면역력 증진 '진안홍삼 데일리' 제품 특별 할인

진안군, 코로나19 사태 진정될 때까지 할인 판매키로

진안군과 진안군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면역력 증진에 좋은 '진안홍삼 데일리' 제품을 오늘부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특별 할인 판매한다.

진안홍삼은 일교차가 크고 서늘한 진안고원에서 자란 인삼으로 만들어져 사포닌 함량이 풍부해 면역력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진안홍삼 데일리'는 진안홍삼을 원료로 국내 유일의 홍삼연구소인 진안홍삼연구소에서 만든 건강기능식품으로 휴대와 복용이 간편한 스틱형 농축액 제품으로 1박스에 30포가 들어있는 달걀 크기 크기이다.

진안군과 진안홍삼연구소는 '진안홍삼 데일리' 제품을 지난달 19일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에 채류했던 우한교민에게 200박스를 전달하기도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박스에 2만50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가격이 할인된 '진안홍삼 데일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매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구매는 진안홍삼한방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3월 중 우체국소포물과 전북거시기점터에서도 구매될 예정이다. 오프라인 구매는 전주 호성동에 위치한 진안 로컬푸드매장과 마이산남부 로컬푸드매장에서 가능하다.

나혜수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국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할인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면서 “우리 국민과 군민 모두 면역력을 키워 건강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과 진안홍삼연구소는 '진안홍삼 데일리' 제품을 지난달 19일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에 채류했던 우한교민에게 200박스를 전달하기도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산림조합 코로나19 방역소독제 후원

진안군산림조합(조합장 전해석)은 지난달 27일 (사)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 코로나19 예방활동과 방역활동에 필요한 방역소독제 2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진안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예방방역활동봉사를 지속 진행하고 있으며, 11개 읍면 360개소 마을회관과 다중이용시설 50개소 등 방역소독을 했고,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전해석 조합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우리 군민들이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며 “우리지역에 방역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조금이나마 소독제를 지원할 수 있어서 다행이며 빠른 종식을 위해 진안군산림조합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한다

진안군은 주민과 내방객들에게 건강한 삶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가로수를 조성하고 가로화단, 꽃길 등 정비한다.

군은 총사업비 2억9200만원으로 투입해 부귀 모래재로 등 4개 노선 12.23km 구간에 메타세쿼이아 등 3종 810주를 심을 계획이다.

마평면 일대에는 이팝나무 가로수가 조성돼 기존 가로수와 녹지축을 형성하고 더욱 아름다운 가로수 길을 만들기 위해 이팝나무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 총 11개 사업에 가로수 관리 등 청·장년층으로 구성된 취약계층 62명을 고용하여 연인원 1만여 명의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가지 가로화단·꽃길에 정장작업과 덩굴류, 잡초 제거 등을 추진한다.

나혜수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이미 조성된 가로수 길은 시기별 병해충 방제와 거름주기, 풀베기 작업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생육환경을 도모하고, 가로화단 및 꽃길은 아름다운 가로경관 제공과 쾌적한 경관녹지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직·간접적으로 어려움 겪는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체 대상

무주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를 비롯해 직·간접적(확진자나 접촉·격리자의 방문 동선에 해당돼 문을 닫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 및 여행, 유통, 숙박, 음식점체 등이다.

무주군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기

한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 줄 계획이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와 분할고지, 고지유예 등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또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군수가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를 유예해준다.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무주군청 재무과 김대식 과장은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지역 회생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라며 “관련 내용을 군민들이 빠짐없이 공유, 만일의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추진

장수군, 코로나19 확산 따른 피해 지원 위해 고충해결지원본부 운영

장수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일자리경제실 내 고충해결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지난달 28일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충해결지원본부는 일자리경제실장을 반장으로 동향조사반, 지역피해 조사·단속반, 피해업체지원반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군은 동향조사반과 지역피해 조사·단속반이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피해업체 지원반이 상황별 신속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장수군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장수사랑상품권을 10%특별할인 판매하고, 소상공인카드수수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기준을 1억2000만 원 이하에서 3억 이하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조기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소상공인특별보증을 신청 받고 있다.

조금현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다”며 “장수군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지역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 천천면 송탄마을, 농업농촌 에너지자립모델 실증지원사업 선정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20년 농업농촌 에너지자립모델 실증지원사업에 천천면 송탄마을이 선정돼 국비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실증지원사업은 총사업비 3억 1000만원(국비 50%, 군 30%, 상생협력기금 20%)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촌

지역 공공생활시설인 마을회관을 에너지자립 모델로 신축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됨으로써 주민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수 군수는 “농촌지역의 마을회관 등을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탈바꿈해 주민들의 생활편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후화된 마을회관들을 대상으로 편의 사업추진과 더불어 신규공모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